

기록적 적자 自保, 획기적 개선… 실손도 상품구조 개편

강호 보험개발원장

인적피해 보상기준 마련 위한 연구 경미사고 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 비급여 진료비 현황·분석 등 추진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작년에 기록적인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 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험개발원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배포한 자료로 대신했다.



강호 보험개발원장

우선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을 올해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

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 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연례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필요성을 공감해 워킹그룹이 결성됐다.

또 보험개발원은 원가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강 원장은 “이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분석자료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로 비급여 표준화 확대와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복지부에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개발원은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주요 질환 예측모형을 활용해 인수 가능한 유병자 범위 확대,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병자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 견인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최근 온디맨드(on-demand)형 상품이 국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요가 있는 위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을 통

해 혁신형 손해보험 상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지원시스템(AOS알파)’의 시범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손해사정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요율 확인시스템(KAIR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활용범위를 생명·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차·일반손해보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개사와 공동 개발한 ‘ARK시스템’에 최신 IFRS17 기준서 수정사항 추가 및 시스템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강 원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개발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험수요를 발굴·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89@metroseoul.co.kr



주금공,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기념식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부산에서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인수계약’ 서명 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銀, 시니어고객 위한 업무협약

전국요양시설 정보 플랫폼 케어닥 간병인 중개, 정보 콘텐츠 제공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시니어고객 대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요양시설 정보 플랫폼 케어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시니어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2만3800여개 요양시설 정보검색 및 케어닥의 5단계 검증과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 사의 전문분야인 금융 및 건강 관련 정보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며, 대고객 교육 프로그램(은퇴설계, 장기요양보험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케어닥은 지난해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올해의 최고 브랜드상을 수상한 명실공히 국내 1위 실버케어 플랫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혜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



우리은행 본점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시니어플러스센터에서는 월 1회 세미나를 정례화해, 신촌점은 ‘은퇴설계’, 명동점은 ‘부동산, 세무 등 자산관리’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월별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우리시니어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캐롯손보, 주행거리 만큼 보험료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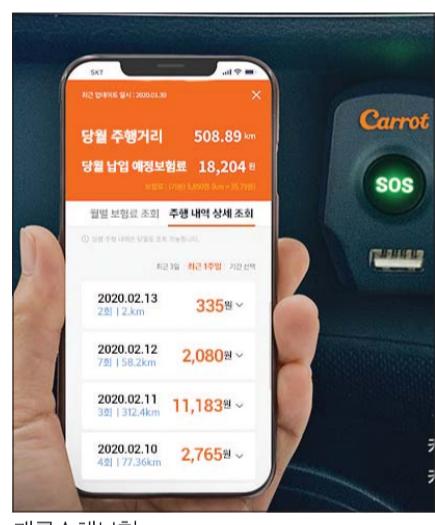
미서 도입중인 신개념 자동차보험
매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분할
운행 데이터측정 장치 韓 최초도입

캐롯손해보험은 11일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퍼마일은 주행거리만큼만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메트로 마일과 같은 신생 디지털 보험사는 물론 올스테이트 등 기존의 자동차보험 빅플레이어들도 도입하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캐롯손보가 처음 출시한다.

연간 보험료를 운행 거리와 무관하게 전액 선납하는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소정의 가입보험료만 납부하면 이후 매월 주행거리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휴가철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눈길에 평소보다 자동차 운행을 적게 했다면 그 달은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다만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계약 시에



캐롯손해보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1년 후 만기 시점에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 km 단위로 정산이 가능한 퍼마일 연납형도 운영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연평균 1만5000km 이하 운전자들에게 기존에 가장 저렴한 가입 방법으로 알려진 디아렉트 자동차보험의 평균과 비교해도 8%에서 최대 30%까지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주말에

만 운전하는 직장인, 자녀 등교나 근처 쇼핑 등에만 차량을 활용하는 주부, 평소에는 잘 운행하지 않는 세컨드카 보유자라면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운전자에게도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매력적이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최초로 도입한 운행 데이터 측정 장치인 ‘캐롯 플러그’와 ‘캐롯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이다.

캐롯 플러그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월 정산형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보험가입 후 즉시 배송된다. 고객이 기기를 자동차의 시거잭에 꽂으면 실시간 주행거리 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준다.

또 운전자는 캐롯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주행거리와 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하다. 응급 상황 시 SOS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E(Emergency)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Sh수협은행, 코로나 피해지원반 구성

Sh수협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수협은행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업 금융부장을 반장으로 수산해양금융부와 글로벌외환사업부, 예산정책부, 심사부가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반’은 본부와 영업점간 협업체계 구축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및 실행 등을 총괄한다.

피해기업 및 어업인은 영업점을 통해 1차 상담 접수 및 지원을 신청하면 금융지원반은 신속한 피해접수와 고객별 맞춤으로 지원에 나선다. ▲기업, 수산해양대출 만기연장(무상환) ▲기업, 수산

해양대출 원리금·이자 상환 유예 ▲신규 운전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5억원) ▲기업, 수산해양대출 금리 우대(최대 1.0%, 어업인 1.5%) 등 최대 100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수산·어업분야를 비롯한 기업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피해가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무기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